

제세 정비와 진흥왕의 영토 확장

2017. 9. 19. 화

이영호 *

1. 정치 체제의 정비
2. 진흥왕 대의 국내외 정세
3. 진흥왕의 영토 확장
4. 태왕의 나라, 신라

1. 정치 체제의 정비

- 지증왕대: 국호 '新羅' 확정---德業日新 網羅四方
- 법흥왕대: 병부, 사정부 설치, 율령의 반포, 상대등의 설치, 불교 공인
- 진흥왕대: 품주 설치, 화랑도의 설치 등

2. 진흥왕 대의 국내외 정세

- 24대 왕. 이름은 삼맥종(參麥宗) 혹은 심맥부(深麥夫). 법흥왕의 동생 입종갈문왕(立宗葛文王) 아들. 어머니는 김씨로 법흥왕의 딸, 왕비는 박씨 사도부인(思道夫人). 7세에 즉위하여 왕태후(王太后) 김씨가 섭정
- 5년(544) 2월에 흥륜사(興輪寺) 완성. 3월에 출가 허용
- 6년(545) 7월에 『국사』 편찬
- 12년(551) 정월에 '건원(建元)' 대신 '개국(開國)' 연호 사용
섭정체제에서 벗어나 친정 시작. 거칠부 등에게 명해 한강유역 점령
- 14년(553) 2월에 황룡사(皇龍寺) 창건. 27년(566) 완공
7월에 신주(新州: 하남, 광주 일대) 설치
- 15년(554) 7월 백제군과 싸워 관산성(管山城: 옥천) 전투에서 승리
- 16년(555) 정월에 비사벌(比斯伐: 창녕)에 완산주(完山州) 설치

* 경북대 사학과 교수.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역임.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2014, 지식산업사), 「신라 국학의 성립과 변천」(2015), 「율진 성유굴 암각 명문의 검토」(2016), 「팔공산 '夫人寺'의 탄생」(2017)

10월에 왕이 북한산에 순행

- 17년(556) 7월에 비열홀주(比列忽州: 안변) 설치
- 18년(557) 국원(國原)을 소경(小京)으로 삼음. 사벌주(沙伐州)를 폐하고 감문주(甘文州) 설치, 신주(新州)를 폐하고 북한산주(北漢山州: 서울 강북 일대) 설치
- 23년(562) 9월에 대가야 멸함
- 29년(568) 연호 ‘태창(太昌)’ 사용
- 10월에 북한산주를 폐하고 남천주(南川州: 이천) 설치
- 비열홀주를 폐하고 달홀주(達忽州: 강원도 고성) 설치
- 35년(574) 3월에 황룡사의 장륙상(丈六像) 주조
- 37년(576) 8월에 왕이 죽음

3. 진흥왕의 영토 확장

- 영토(領土): “국가가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으로 육지와 섬 등의 토지로서 성립하는 국가 영역”(홍성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2)
- 한국 고대국가: 영토--> ‘왕토(王土)’라는 관념, 영토의식의 주체--> 국왕
- 진흥대왕대의 비석(적성비, 순수비, 감악산비) --> 고대 영토의식의 반영

가. 단양적성비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면 하방리의 적성 내의 발견지에 위치(국보 198호).
- 1978년 1월 발견. 비의 높이는 93cm, 상폭은 107cm, 하폭은 53cm. 비문은 22行, 각행 20자 정도로, 전체 430자 내외로 추정. 현재 남아 있는 글자 수는 288자이나 주변에서 수습된 비편 21字를 합하면 현재 알 수 있는 글자는 309자 정도.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거의 없다.
- 건립연대는 신라가 유역으로 진출한 시기인 진흥왕 12년(551)을 상한으로 보는 견해, 적성비에 보이는 인물의 관등을 중시하여 진흥왕 6년(545) 이전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양자가 지닌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진흥왕 11년(550)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 내용은 신라가 고구려 지역이었던 적성(赤城)을 공략하고 난 후 그들을 도와 공을 세웠던 적성 출신의 아이차(也尔次)와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던 인물들을 포상하고 나아가 적성지방민들을 위무(慰撫)할 목적에서 세운 비로 추측.

[해석]

(A) ... (년) ... 월에 왕이 대중등(大衆等)인 탁부(喙部) 출신의 이사부지(伊史夫智)

- 이간지(伊干支) (사탁부 출신의?) 두미지(豆弥智) 파진간지(彼珍干支), 탁부(喙部) 출신의 서부질지(西夫叱智) 대아간지(大阿干支), □부지(夫智) 대아간지(大阿干支), 내례부지(內禮夫智) 대아간지(大阿干支), 고구림성(高頭林城)에 있는 군주(軍主)들인 탁부(喙部) 출신의 비차부지(比次夫智) 아간지(阿干支), 사탁부(沙喙部) 출신의 무력지(武力智) 아간지(阿干支), 추문촌 당주(鄒文村幢主)인 사탁부(沙喙部) 출신의 도설지(導設智) 급간지(及干支), 몰사벌(勿思伐)(城 幢主)인 탁부(喙部) 출신의 조흑부지(助黑夫智) 금간지(及干支)에게 교(敎)하시었다.
- (B) 이 때에 적성(赤城) 출신의 야이차(也尔次)에게 교(敎)하시기를 ... 중에 옳은 일을 하는데 힘을 쓰다가 죽게 되었으므로 이 까닭으로 이후 그의 처(妻)인 삼(三)... 에게는 ... 리(利)를 허(許)하였다.
- (C) 사년(四年) 소녀(小女), 사문(師文) ... 공형(公兄)인 추문촌(鄒文村) 출신의 파진루(巴珍婁) 하간지(下干支) ... (前)자(者)는 다시 적성연(赤城烟)으로 가게 하고 후자(後者) 공형(公兄)은 ... 이엽(異葉)이건 국법(國法)에는 분여(分與)하지 만 비록 그러하나 이(伊) ... 자(子), 도지(刀只) 소녀(小女), 오례혜(烏禮兮) 찬간지(撰干支) ... 법(法)을 적성전사법(赤城佃舍法)으로 만들었다.
- (D) 별도로 관(官)은 ... 불혜녀(弗兮女), 도두지노열리파(道豆只又悅利巴) 소자(小子), 도라혜(刀羅兮) ... 합하여 5인에게 ... 를 내렸다.
- (E) 별도로 교(敎)하기를 이후로부터 나라 가운데에 야이차(也尔次)와 같이 ... 옳은 일을 하여 힘을 쓰고 남으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면 만약 그가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나이가 적건 (많건) ... 형제(兄弟)이건 이와 같이 아뢰는 자가 대인(大人)인가 소인(小人)인가 ...
- (F) ... 부(部) 출신의 나불탐사실리(奈弗耽郝失利) 대사(大舍), 추문(鄒文)(村) ... 몰사벌성당주 사인(勿思伐城幢主使人)은 나리촌(那利村) ...인(人)은 몰지차(勿支次) 아척(阿尺), 서인(書人)은 탁부(喙部) 출신의 ... 인석사립인(人石書立人)은 비금개리촌(非今皆里村) ... 지(智) 대오(大烏)이다.

- * 大衆等, 軍主, 幢主, 使人
- * 國法, 赤城佃舍法,
- * 小子, 小女, 女
- * 京位, 外位

나. 창녕비

- 창녕군 창녕읍 교상동 만옥정 공원 안에 있다. 원래는 화왕산에서 뺏어내린 목마산 서쪽 언덕에 있었다고 한다. 신라는 법흥왕대 금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하류 유역 점령한 후 서방으로 진출하여 555년(진흥왕 16) 창녕에 해주(완산주)를 설치하고, 562년(진흥왕 23) 대가야를 멸망시킴으로써 가야 정복 사업은 일단락 되었다.

- 비석은 신사년(辛巳年) 2월 1일 건립되었는데, 신사년은 561년(진흥왕 22)으로 추정된다. 진흥왕의 4비 가운데 창녕비를 제외한 3비에는 서두에 “순수관경(巡狩管境)”이란 표현이 있어서 순수비로 보나, 이 비석에는 이러한 표현이 없다. 대체로 순수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척경비, 군신회맹비, 전군지휘자 회의비 등으로 보기도 한다. 공식 명칭은 신라진흥왕척경비(新羅眞興王拓境碑)이다. 사방군주(四方軍主)로서 비자벌정군주(比子伐停軍主), 한성군주(漢城軍主), 비리성군주(碑利城軍主), 감문군주(甘文軍主) 등 사방군주(四方軍主)가 열거되어 있어 주목된다.

[해석]

신사년(辛巳年) 2월 1일에 세웠다. 과인은 어려서 왕위에 올라 정사(政事)를 보필하는 신하에게 맡겼다. … 일의 끝에 … 사망(四方)으로 … 널리 … 이익을 취하고 수풀을 제거하여 … 토지와 강토와 산림(山林)은 … 대등(大等)과 군주(軍主), 당주(幢主), 도사(道使)와 외촌주(外村主)는 살핀다. … 고로 … 해주(海州)의 전답(田畝)□□와 산림과 하천은 … 비록 … 그 나머지 사소한 일들은 … 상(上) 대등(大等)과 고내말전(古奈末典), 법선(法選)□인(人)과 상(上) … 이로써 … 몸이 벌을 받는다. 이때 □□대(大)□는 □□□□지(智) 갈문왕(葛文王)이고, (중략)

사방군주(四方軍主)로서 비자벌정군주(比子伐軍主)는 사탁(沙喙)의 등(登)□□지(智) 사척간(沙尺干)이고, 한성군주(漢城軍主)는 탁(喙)의 죽부지(竹夫智) 사척간(沙尺干)이고, 비리성군주(碑利城軍主)는 탁(喙)의 복등지(福登智) 사척간(沙尺干)이고, 감문군주(甘文軍主)는 사탁(沙喙)의 심맥부지(心麥夫智) 급척간(及尺干)이다.

상주(上州) 행사대등(行使大等)은 사탁(沙喙)의 숙흔지(宿欣智) 급척간(及尺干), 탁(喙)의 차질지(次叱智) 나말(奈末)이다. 하주(下州) 행사대등(行使大等)은 사탁(沙喙)의 춘부지(春夫智) 대나말(大奈末), 탁(喙)의 취순지(就舜智) 대사(大舍)이다. 우추실□□서 아군(于抽悉□□西阿郡) 사대등(使大等)은 탁(喙)의 북시지(北尸智) 대나말(大奈末), 사탁(沙喙)의 수정부지(須仃夫智) 나(奈)□이다. □위인(爲人)은 탁(喙)의 덕문형(德文兄) 나말(奈末)이다. 비자벌정(比子伐停) 조인(助人)은 탁(喙)의 먹살지(覓薩智) 대나말(大奈末)이다. 서인(書人)은 사탁(沙喙)의 도지(導智) 대사(大舍)이다. 촌주(村主)는 망충지(罔聰智) 술간(述干), 마질지(麻叱智) 술간(述干)이다.

* 四方

* 四方軍主

比子伐軍主 沙喙 登□□智 沙尺干: 창녕

漢城軍主 喙 竹夫智 沙尺干: 서울

碑利城軍主 喙 福登智 沙尺干: 안변

甘文軍主 沙喙 心麥夫智 及尺干: 김천

다. 북한산비

- 경기도 고양시 은평면 구기리 비봉(碑峰)에 있었는데,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국보 제3호이다. 비문은 12행으로 각 행 21자 혹은 22자이나, 읽기 어려운 것이 많다. 정확한 연대를 알려주는 간지가 없어 분명히 하기는 어렵지만, 비문 중의 ‘남천군주(南川軍主)’가 하나의 단서가 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진흥왕 29년(568) 10월에 북한산주(北漢山州)를 폐하고 남천주(南川州)를 설치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본 비는 568년 10월 이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석의 석재는 분석 결과 경주 지역에서 산출되는 돌로 밝혀졌다.

[해석]

진흥대왕(眞興太王) 및 중신(衆臣)들이 □□[관경]을 순수(巡狩)할 때의 기록이다.
 … □언(言)□령(令) 갑병(甲兵)之□□□□□□ 패주(霸主)설(設)□상(賞)□□ …
 …지소용(之所用) 고사서(高祀西)□□□□□ 서로 싸울 때 신라의 태왕(太王)이 □ …
 … □덕불(德不)□병고(兵故)□□□□□□건문(建文) 크게 인민(人民)을 얻어 □□□
 …
 … 이리하여 관경(管境)을 순수(巡狩)하면서 민심을 □□하고 노고(勞苦)를 위로하고자 한다. 만일 충성과 신의와 정성이 있고 □ …
 … 상(賞)을 더하고 … 한성(漢城)을 지나는 길에 올라 □ …
 … 도인(道人)이 석굴(石窟)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 … 돌에 새겨 사(辭)를 기록한다.
 … 척간(尺干), 내부지(內夫智) 일척간(一尺干), 사탁(沙喙) 무력지(武力智) 잡간(迺干)이다. 남천군주(南川軍主)는 사탁(沙喙) … 부지(夫智) 급간(及干), 미지(未智) 대나(大奈)□ □□□ 사탁(沙喙) 굴정차(屈丁次) 나(奈)이다.
 … 곡(谷)□지(指)□ 비고 그윽한 즉 수(水)□□□□□□(劫) 처음에 세워 만든 바는 비(非)□ …
 … 순수(巡狩)하여 견(見)□□□□□□□□세기정(歲記井)□□□

- * ‘巡狩管境’
- * ‘巡狩’
- * ‘眞興太王’
- * ‘南川軍主’
- * 漢城

라. 황초령비. 마운령비

- 황초령비는 함경남도 함흥군 하기천면 황초령에 있었는데, 조선 철종 3년(1852)에 관찰사 윤정현(尹定鉉)이 영(嶺) 아래의 중령진(中嶺鎭)으로 옮겼다고 한다. 이

비는 상부의 일부와 좌측부의 상부가 깨어져 나가고, 제2석과 제3석을 접합한 부분은 글자가 보이지 않아 판독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 다만 같은 해에 만들어진 마운령비의 비문과 기본적으로 구조가 동일하고 왕을 수행한 인물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글자의 상당수를 추정 복원할 수 있다.

- 마운령비는 함경남도 이원군 동면 사동 만덕산 복흥사의 배후에 솟아 있는 운시산(雲施山, 운무산)의 산꼭대기에 세워졌다고 전하며, 그 후 복흥사(福興寺) 위 부락 모퉁이의 약간 평탄한 곳에 옮겨 별도의 비좌(碑座)를 만들어 세워 두었다. 비문 제1행에 ‘태창원년세차무자□□입일일□□(太昌元年歲次戊子□□廿一日□□)’이라는 귀절이 있어 진흥왕 29년(568)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어서 ‘순수관경(巡狩[管境])’이라는 표현이 명기되어 있다.
- 문헌상 신라의 동북경은 진흥왕 17년(556)년 설치한 비열홀주가 관할하고 있었는데, 이 두비는 안변보다 더 북방에 세워졌다. 일제 식민주의 사학자들은 한 때 위작설(僞作說)과 이치설(移置說)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는 학문적 태도가 아니다. 비의 건립 배경으로 하나는 동해안의 해상교통로를 이용하여 진출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고구려가 동옥저 지역을 신라에 할양했거나 신라가 복속했을 가능성이다.

[마운령비 해석]

(앞면)

- A. 태창(太昌) 원년(元年) 세차 무자(戊子) □□ 21일 □□ □흥태왕이 □□[管境]을 순수(巡狩)하여 돌에 새겨 기록한다.
- B. 무릇 순풍(純風)이 일지 않으면 세도(世道)가 참됨에 어긋나고, 그윽한 덕화(德化)가 퍼지지 않으면 사악(邪惡)한 것이 서로 경쟁하도다. 그러므로 제왕이 연호를 세움에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짐은 역수(歷數)가 몸에 이르러 위로는 태조(太祖)의 기틀을 이어받아 왕위를 계승하여, 몸을 조심하며 스스로 삼가하나 하늘의 도리를 어길까 두렵다. 또 하늘의 은혜를 입어 운수를 열어 보여주며, 명명한 가운데 신기(神祇)에 감응되어 부명(符命)에 응하고 셈대에 적합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방(四方)으로 영토를 개척하여 널리 백성과 토지를 획득하니, 이웃나라가 신의를 맹세하고 화사(和使)가 서로 통하여 오도다. 아래로 스스로 헤아려 신구민(新舊民)을 무육(撫育)하였으나 오히려 말하기를 왕도의 덕화(德化)가 고루 미치지 아니하고 은혜가 베풀어짐이 있지 않다고 한다. 이에 무자년(戊子年) 가을 8월에 관경(管境)을 순수(巡狩)하여 민심을 살피서 위로하고 물건을 내려주고자 한다. 만약 충성과 신의와 정성이 있거나, 재주가 뛰어나고 재난의 기미를 살피고, 적에게 용감하고 싸움에 강하며, 나라를 위해 충절을 다한 공이 있는 무리에게는 벼슬과 □(상품)을 상(賞)으로 더하여 주고 공훈(功勳)을 표창하고자 한다.
- C. 수레를 타고 나가 10월 2일 계해(癸亥)에 이르러 ... 인하여 변계(邊堺)지역을 설

유(說諭)하였다.

(뒷면)

D. 이때 수레를 따른 사문도인(沙門道人)은 범장과 혜인이다. 대등(大等)은 탁부 거칠부지(居叱夫智) 이간, 내부지 이간, 사탁부 무력지 잡간, 탁부 복등지 대아간, 비차부지 급간, 미부 대나말, 급진부지 나말이다. 집가인(執駕人)은 탁부 만혜 대사, 사탁부 무지 대사이다. 이내종인(裏內從人)은 탁부 몰혜차 대사, 사탁부 비시지 대사이다. 약인(驪人)은 사탁부 위충지 대사이고, 점인(占人)은 탁부 여난 대사이고, 약사(藥師)는 독지차 대사이다. 나부통전(奈夫通典)은 본피부 가량지 소사이고, □□□□□□명 길지이고, 당래객(堂來客) 이내객(裏來客)은 50이고, 외객(外客)은 □□□□□□□□□□□□□□□□지 사간이다. 조인(助人)은 사탁부의 순지 나말이다.

- * ‘太昌 元年’
- * ‘巡狩管境’
- * 四方託境 廣獲民土 隣國誓信 和使交通--‘四方’ 의식
- * [因諭邊]堺者矣--‘邊堺’ (황초령비)
- * 因諭邊堺矣--‘邊堺’ (마운령비)
- * 朕, 帝王建號, 太祖

마. 감악산비

- 1982년 발견.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산 182번지
- 기단부, 비신, 개석 있음. 높이 170cm, 너비 70~79cm
- 몰자비(沒字碑), 북한산 진흥왕순수비의 형태와 유사

4. 태왕의 나라, 신라

- ‘法興大王’의 칭호(울주 천전리서석)
- ‘眞興太王’의 칭호(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 진흥왕은 중국의 천자와 같이 관할 영토를 순수하고 돌에 기록.
- 순수 이유--> 유교적 왕도정치의 표방
- 수행 인물 : 사문도인(승려), 대등, 집가인 등. 왕권과시
- 순수비의 성격: 비석 건립지를 경계로 삼는 정계비
- 순수비 건립 이유에 대한 제설

- : 확대된 영역 확인, 민심위무, 공로자 표창
 - : 세속의 전륜성왕으로서 인도 아소카왕의 행적 답습
 - : 태산봉선(泰山封禪) 의식을 거행-북한산 비봉은 해발 560미터 정상, 3비는 창녕비와는 다르다. 3비는 장방형. 모자와 같은 제액이 모두 있다(현재 제액이 남은 것은 마운령비뿐). 3비는 산꼭대기에 위치. 순수[관경]이란 문자가 있다. 석굴의 도인은 도교의 도사이다.
- 태산봉선은 天神과 地祇에게 제사지내 천명을 받는의식, 순수비문은 봉선문, 불로장생의 신선사상. 봉선은 연호 제정 및 개정과도 밀접.

※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총 30권) 인터넷 열람 주소(e-book)

▶ 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 ◀

※ 강의 자료, 한국고대사학회 홈페이지(시민강좌)

▶ <http://www.koreaancienthistory.net> ◀

[참고문헌]

- 경상북도, 2016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1~30권)
한국고대사학회, 2017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 1, 2』. 주류성
젊은역사학자모임, 2017 『사이비역사와 한국고대사』, 역사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 2016 『한국고대사산책』, 역사비평사
한국고대사회연구소,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2, 1992.
노용필, 『신라진흥왕순수비연구』, 일조각, 1996.
김영하, 「신라시대 순수 성격」, 『민족문화연구』 14, 1979.
김태식, 「봉선대전(封禪大典), 그 기념물로서의 진흥왕 순수비」, 『백산학보』 58, 2004.

<MEMO>

<절취선>

2017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시민강좌 <시민 참여> 질문지

- *강의 내용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질문지는 강사의 강의를 끝난 다음, 중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